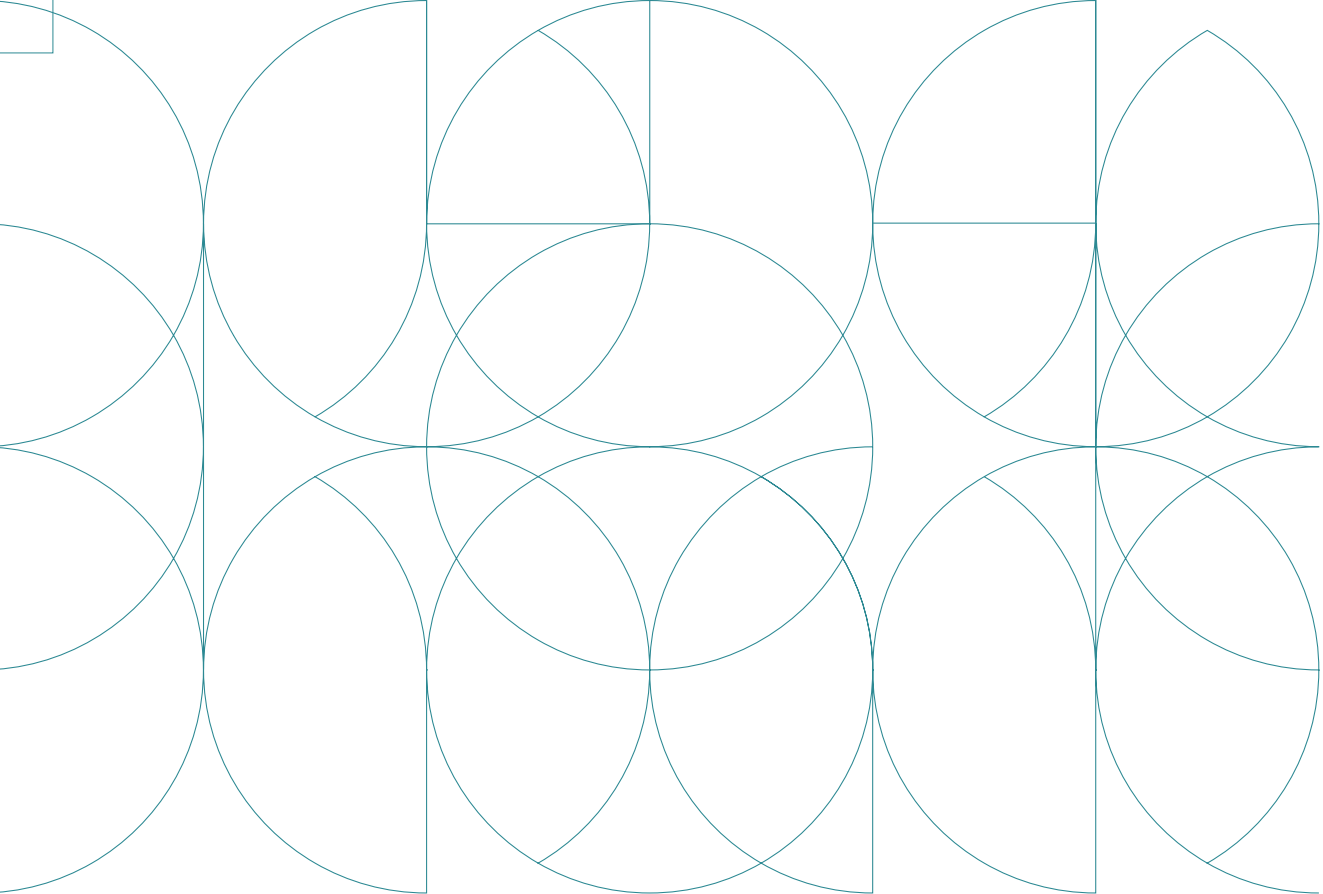


KBS S.O. 824th

2026. 3. 31. TUE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A](#)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T](#) 02-6099-7400
[F](#) 02-6099-7416
[K](#) www.kbssymphony.org

[f](#) facebook.com/kbssymphony
[plus](#)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 kbssymphonyorchestra
[▶](#)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

Program

<p>모차르트 W. A. Mozart</p> <p>클라리넷 김한 Clarinet Han Kim</p>	<p>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622 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622</p> <p>I. Allegro 빠르게</p> <p>II. Adagio 느리게</p> <p>III. Rondo. Allegro 론도. 빠르게</p>	<p>Ⓢ 28'</p>
<p>인터미션</p>	<p>Intermission</p>	<p>Ⓢ 15'</p>
<p>브루크너 A. Bruckner</p>	<p>교향곡 제4번 E♭장조, WAB 104 '낭만적' Symphony No. 4 in E-flat Major, WAB 104 'Romantic' (1878/80 Version, Ed. Leopold Nowak)</p> <p>I. Bewegt, nicht zu schnell 활기 있게, 그러나 너무 빠르지 않게</p> <p>II. Andante quasi Allegretto 안단테, 다소 알레그레토풍으로</p> <p>III. Scherzo. Bewegt - Trio. Nicht zu schnell. Keinesfalls schleppend - Scherzo da capo 스케르초. 활기차게 - 트리오. 너무 빠르지 않게. 결코 늘어지지 않게 - 스케르초 다 카포</p> <p>IV. Finale. Bewegt, doch nicht zu schnell 피날레. 활기 있게, 그러나 너무 빠르지 않게</p>	<p>Ⓢ 65'</p>

※ 총 소요시간: 120분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휘 마렉 야노프스키

독일 정통 음악의 위대한 거장으로 손꼽히는 마렉 야노프스키는 바그너, 슈트라우스, 브루크너, 브람스부터 제2빈 악파에 이르기까지 독일 레퍼토리에 대한 심도 깊은 해석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특히 베를린 방송교향악단과 함께한 바그너 <링 사이클> 전곡 실황은 BBC 뮤직 매거진으로부터 “21세기를 위한 링의 사운드”라는 극찬을 받으며 새로운 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노프스키는 베를린 필하모닉, 드레스덴 필하모니, WDR 쾰른 방송교향악단,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NHK 교향악단, 시카고 심포니 등 세계 유수의 악단들과 긴밀히 협업하며 탁월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5/26 시즌에는 취리히 톤할레, 파리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등과의 재협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뉴욕 필하모닉 무대에도 다시 한번 오를 계획이다. 또한 툴루즈 국립 오케스트라,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와의 연주도 앞두고 있다.

국제적 수준의 오케스트라를 구축하는 역량으로 높이 평가받는 그는 음악감독으로서도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드레스덴 필하모니(2019~2023, 2001~2003)와 베를린 방송교향악단(2002~2016)의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1984~2000)의 음악감독으로 재임하며 해당 악단을 프랑스 대표 오케스트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외에도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등 주요 악단의 수장을 지냈다.

바르샤바 태생으로 독일에서 수학한 그는 아헨, 쾰른 등에서 경력을 쌓은 뒤 프라이부르크와 도르트문트 총괄 음악감독을 거치며 명성을 확립했다. 이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빈 슈타츠오퍼 등 세계 유수의 극장에서 정기적으로 지휘하며 입지를 다졌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독일 교향악 레퍼토리에 집중하며 독보적인 예술적 위치를 확립했다.

40여 년에 걸친 그의 방대한 음반 목록에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과 녹음한 바그너 <링 사이클> 전곡을 비롯해 브루크너 교향곡 전집(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베버 <마탄의 사수>, 베토벤 교향곡 5-6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드레스덴 필하모니,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등과 함께 다수의 수상 경력을 지닌 음반들을 발표하며 오늘날까지 꾸준한 찬사를 받고 있다.

CONDUCTOR MAREK JANOWSKI



클라리넷 김한

2023년 마에스트로 구스타보 두다멜에 의해 세계적 권위의 파리 국립오페라 클라리넷 수석으로 임명된 김한은, 350년에 달하는 악단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동양인 관악부문 종신최고수석(Super-soliste)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시대 관악계를 대표하는 연주자 중 한 명인 그는 “동양인은 관악기에 약하다”는 편견을 깨고 세계 무대에서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새롭게 세워가고 있다.

1996년 2월 서울에서 태어난 김한은 여덟 살에 클라리넷을 처음 시작했다. 열한 살의 나이로 데뷔한 직후 언론으로부터 “클라리넷 신동”(동아일보 전승훈 기자), “이 영재에겐 숨소리마저 악기”(조선일보 김성현 기자)라는 호평과 함께 평단의 관심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그는 관악 연주자로서는 드물게 어린 시절부터 솔리스트로서의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며 남서독 방송교향악단,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뮌헨 방송교향악단,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실내악 연주자로서 그는 조성진, 이고르 레빗, 아르토 노라스, 다니엘 뮐러-쇼트 등과의 음악적 협업을 통해 이제는 신동에서 나아가 젊은 거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고 있으며, 독일 하이델베르크 스프링 음악축제, 영국 시티 오브 런던 페스티벌, 프랑스 파블로 카잘스 페스티벌, 일본 국제 클라리넷 페스티벌, 통영국제음악제를 비롯한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하였다. 또한 2021년 시즌에는 관악기 연주자로서 최초로 서울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에 선정되어 재즈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김한은 스무 살에 취리히 오페라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단원으로 오케스트라 연주자로서의 열정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2019년에는 헬싱키로 자리를 옮겨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에서 제2수석 클라리넷 주자로 4년간 재임했으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BBC 웨일스 국립오케스트라 등 수많은 오케스트라에서 객원 수석으로 활약했다. 김한은 작곡가들과 꾸준히 협업해왔으며, 근대 및 현대 음악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도전에 큰 열정을 쏟고 있다. 그는 마그누스 린드베리와 토마스 아데스의 오케스트라 작품에 협연하였으며, 작곡가 브렛 딘이 직접 지휘하는 가운데 그의 클라리넷 협주곡 <Ariel's Music>을 연주했다. 또한 그는 류재준의 <클라리넷 소나타>, <클라리넷 5중주>, 작곡가 후미노리 타나다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초연한 바 있다.

김한은 13세의 나이로 제2회 베이징 국제음악콩쿠르에 출전해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16년 제3회 자크 랑슬로 국제 클라리넷 콩쿠르에서 청중상과 심사위원 만장일치의 1위를 동시에 차지했다. 2019년에는 제68회 뮌헨 ARD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준우승, 헨레-우어텍스트 상(Henle-Urtext Prize), 그리고 청중상까지 석권하며 차세대를 대표하는 클라리넷 연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2만 6천명 이상의 구독자와 1천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한 유튜브 채널을 보유한 김한은, 피아노와 현악기에 비해 덜 알려진 클라리넷 음악의 새로운 관객층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그는 자비네 마이어 사사 하에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를 최고성적으로 마쳤다.

CLARINET HAN KIM

새와 바람, 나무와 숲의 음악

음악사 최고의 천재라는 평가에 걸맞은 활약을 짧은 생애 동안 남긴 잘츠부르크 출신의 모차르트, 마흔이 다된 이후 본격적으로 뛰어난 교향곡이라는 장르에서 거대한 세계를 구축해 낸 린츠 태생의 브루크너. 이제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그 명성을 확고히 한 두 작곡가이지만 그들 각자의 경력과 선보인 음악은 판이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무슨 조화인지 이번 정기연주회에 올라가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과 브루크너 <교향곡 4번>은 매우 닮은 얼굴을 하고 있다. 작곡 시기가 거의 백 년 가까이 차이 나지만 마치 같은 곳을 바라보는 듯한 작품들을 설명하는 글을 쓰면서 ‘자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려보았다. 온화하면서도 밝은 오케스트라 소리에 클라리넷의 맑은 음색이 어우러지는 모차르트의 작품.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들어간 숲에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웅장한 정경을 만나게 되는 듯한 브루크너의 교향곡. 낭만이 단순히 감정의 세밀한 변화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두 작곡가의 음악은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모차르트 /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622

W. A. Mozart / 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622

작곡	1791년
초연	1791년 10월 16일, 체코 프라하
편성	플루트2, 바순2, 호른2, 현5부
연주시간	약 28분

1791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서른 중반이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재정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으며, 야속하게도 건강 또한 눈에 뵈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음악을 써내겠다는 의지만큼은 선명했던 모차르트. 그는 그해 가을, 친구인 클라리네티스트 안톤 슈타들러를 위한 작품을 쓰며 인생의 끝자락을 반짝이고 있었다.

모차르트가 슈타들러를 처음 만난 것은 모차르트가 빈에 막 입성한 1781년경으로 추정된다. 빈이라는 대도시에서 큰 뜻을 펼치고자 했던 모차르트,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빈으로 들어와 클라리넷이라는 비교적 생소한 악기의 주자로 활약하기 시작했던 슈타들러. 그들은 저마다의 재능으로 순식간에 도시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클라리넷을 위한 작품을 쓰겠다는 모차르트의 생각 또한 그들이 평소 주고 받았던 영향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클라리넷 협주곡> 또한 슈타들러가 제작에 참여한, 보다 넓은 음역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클라리넷을 위해 쓰인 것이다. 그렇게 클라리네티스트가 독주자로 활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준 모차르트는 작품의 완성으로부터 몇 주 지나지 않은 1791년 12월 5일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의 나이 불과 서른다섯이었다.

I. Allegro

다정하면서 활기찬 주제를 오케스트라가 선보이며 시작하는 작품. 이후 앞서 제시된 주제를 다시 들려준 클라리넷 솔로는 여기에 우울한 감정까지 살짝 덧대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 장조와 단조를 오가며 자유로운 악상을 전개하는 이 음악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역시 클라리넷의 독주이겠다. 저음역을 알베르티 베이스로 채우는 부분이나, 폭넓은 음역 사용과 함께 시시각각 달라지는 음색 등 클라리넷의 다채로운 면모를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이 첫 악장에서는 한껏 느낄 수 있겠다. 작곡가가 준비한 동선을 함께 걸어온 독주자와 오케스트라는 다시 원주제로 돌아와 악장의 문을 단정하게 닫는다.

II. Adagio

모차르트는 어떻게 하면 노래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작곡가였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악음악 작곡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악기의 도움을 받아 부드럽게 상승해 오페라 아리아를 떠올리게 하는 독주를 악장 내내 들려주는 클라리넷. 그리고 독주자가 만들어내는 소리를 한없이 부드러운 음악으로 감싸안은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지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III. Rondo. Allegro

A-B-A-C-A-B-A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론도 악장. 가볍고 산뜻한 주제를 클라리넷이 제시하며 시작하는 악장은 이후에도 클라리넷의 폭넓은 음역을 활용한 정겨운 선율을 들려주며 음악을 이어 나간다. 클라리넷이 저음역과 고음역을 넘나드는 연주를 들려주며 마치 이중창을 하는 듯한 순간을 연출하는 C부분은 악장의 숨은 하이라이트. 이후 경과구를 지난 작품은 앞서 선보였던 주제를 살짝 변형해 들려준 뒤 마무리된다.

브루크너 / 교향곡 제4번 E♭장조, WAB 104 '낭만적'

A. Bruckner / Symphony No. 4 in E-flat Major, WAB 104 'Romantic'

(1878/80 Version, Ed. Leopold Nowak)

작곡	1874년
초연	1881년 2월 20일, 오스트리아 빈
편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3, 트롬본2, 베이스트롬본, 튜바,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 65분

1부에서 감상한 모차르트나, 타협 없는 우직함이 작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베토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그들의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음악을 작품으로 남겼다. 그런데 오늘 연주되는 작품의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는 자신이 써낸 작품과 거리가 먼 성격의 소유자였다. 비교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작품을 써냈고, 각 음악의 전개 방식 또한 마치 대양과도 같은 넓은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브루크너는 놀라울 정도로 노심초사하는 성격의 인물이었다고 전해진다.

좋게 말하면 신중한 그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은 (그가 평생 이어 나갔던) 길고 세밀한 개정 작업에 있었다. 오늘 감상할 <교향곡 4번> 또한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거친 작품. 브루크너가 이 교향곡을 완성한 해는 1874년이 었다. 그러나 작품은 완성 이후로도 한동안 연주되지 못했고, 다른 작품들 또한 이렇다할 반응을 얻지 못하자 작곡가는 이전에 일단락 지었던 작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스케르초와 마지막 악장의 전면 개정을 포함한 그의 새로운 <교향곡 4번>은 다행히 1881년 한스 리히터의 지휘로 성공을 거둔 이후로 브루크너의 교향곡 중에서도 남다른 인기를 구가하는 작품으로 자리 잡는다.

I. Bewegt, nicht zu schnell

현악기군의 열은 트레몰로 위로 피어오르는 호른의 솔로, 그리고 이 주제를 그대로 받는 목관악기군의 연주와 함께 작품은 서서히 앞으로 나아간다. 본 악장의 주요 주제는 (흔히 브루크너 리듬이라 불리는) 4분음표 2개와 2분음표 길이의 음가를 셋잇단음표로 묶여 제시되며 이는 악장이 끝날 때까지 다양한 음형으로 변형되어 등장한다. 첫 번째 주제 이후에 등장하는 두 번째 주제에서는 새가 가볍게 지저귀는 듯한 음형을 바이올린이 제시하고 내성을 채우는 비올라와 첼로 소리 또한 수면 위로 올라온다. 이어 제시되는 세 번째 주제는 현악기군이 트레몰로를 연주하는 동안 앞서 언급한 리듬을 목관, 금관악기가 힘차게 제시하면서 펼쳐진다.

음악은 이후 팀파니가 아주 열게 북을 두드리고 현악기군이 숨을 죽인 듯한 트레몰로를 연주하는 가운데 발전부로의 이행을 준비한다. 이어 앞서 접한 주제를 단조로 제시하면서 위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작품은 음악을 장조로 옮겨온 뒤 코랄풍의 주제를 금관악기가 주도하는 가운데 웅장하게 펼쳐 보인다. 이후 현악기군이 마치 실내악에서 들을 수 있을 법한 선율을 연주하며 잠시 안식을 찾는 음악은 악장의 문을 열었던 주제를 호른과 목관악기군의 연주로 다시 한번 들려주며 재현부에 접어들게 된다. 주제를 이끌어가는 큰 틀은 유지하며 몇몇 부분에서 변화를 준 뒤 접어든 마지막 부분. 악장은 오케스트라의 다른 악기들이 잘게 쪼개진 리듬을 연주하며 동력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호른이 악장을 열었던 주제를 끝까지 사수하는 가운데 마무리된다.

II. Andante quasi Allegretto

첼로 파트가 주제를 제시한 뒤 이를 목관악기군이 이어받으며 시작하는 느린 악장. 음을 짧게 가져가면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현악기군의 연주가 춤곡의 느낌까지 자아내게 한다. 한동안 목관악기, 현악기가 주도권을 주고받으며 온화하게 흘러가는 음악. 악장이 중반으로 들어선 이후 오랫동안 잠잠하던 금관악기군이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이 어마어마한 목소리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선보인 뒤 음악은 예의 평온함을 악장 마지막까지 유지하며 조용한 방점을 찍는다.

III. Scherzo. Bewegt - Trio. Nicht zu schnell. Keinesfalls schleppend - Scherzo da capo

A-B-A의 대비가 두드러지는 전형적인 브루크너의 스케르초 악장. 현악기군의 트레몰로에서 시작된 호른과 트럼펫의 팡파르가 오케스트라 전체로 확장된다. 대대적인 사냥에 나선 사냥꾼들의 행진 같은 소리가 우렁차게 퍼져 나간 이후에는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목가적인 풍경의 트리오 부분으로 접어든다. 아무 걱정 없는 한가로운 분위기 속에서 어디선가 호른과 트럼펫의 팡파르 소리가 들려오고, 이후 서서히 원주제로 돌아온 음악은 대단한 기세를 마지막 음까지 밀어붙이며 마무리된다.

IV. Finale. Bewegt, doch nicht zu schnell

어딘가를 맴도는 듯한 음형을 연주하는 2바이올린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작하는 마지막 악장. 이어 오케스트라 구성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분연히 일어서는 듯한 음악이 울려, 거대한 파이프오르간 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일련의 화음을 들려준다. 음 하나하나를 탄탄하게 쌓아 올려 만들어지는 화음이 거대한 건축물에 가깝다고 생각할 즈음, 작곡가는 현악기군이 주도하는 또 다른 주제로 건너가 새로운 장면을 묘사하기 시작한다. 이윽고 살짝 드리워진 구름을 뚫고 나오는 듯한 오케스트라의 총주를 별안간 들려준 음악은 다시금 긴 호흡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 시작한다. 거대한 긴장과 이완의 반복이 몇 차례 이어진 뒤 여기서 가다듬는 호흡이 마지막을 위한 것임을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암시하는 작품. 그렇게 한동안 잠잠했던 음악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할 때 청중은 이제껏 경험했던 음악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쌓아 올려졌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글 | 윤무진(음악 칼럼니스트)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KBS교향악단



KBS교향악단에 피어난 새로운 선율

신입 단원 3인방을 만나다.

KBS교향악단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세 명의 가족이 합류한 지도 어느덧 5개월. 무대 위에서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웅장하게 새로운 호흡을 맞춰가는 김시연(제2바이올린 단원), 이하늘(클라리넷 부수석), 장수정(호른 단원) 단원을 만나 그들의 설레는 첫 소회를 담았습니다.



제2바이올린 / 김시연
“
예술을 사랑하는
성실한
긍정주의자
”

Q. 클래식 학도에서 최고의 악단으로, 입단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손을 잡고 보러 왔던 KBS교향악단의 공연은 제게 꿈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으로서 무대에 선다는 건 음악도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늘 긍정적인 태도로 이 벅찬 감동을 관객들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Q. 오케스트라 연주의 가장 짜릿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수십 명의 에너지가 하나로 응축될 때요! 특히 작년 12월, 정명훈 선생님과 함께한 베토벤 <합창> 무대가 잊히지 않아요. 지휘자의 손끝 하나에 수많은 연주자와 합창단이 자석처럼 이끌려 완벽하게 연결되던 그 순간, 말로 다 못 할 전율을 느꼈습니다.

Q. 관객 여러분께 전하는 한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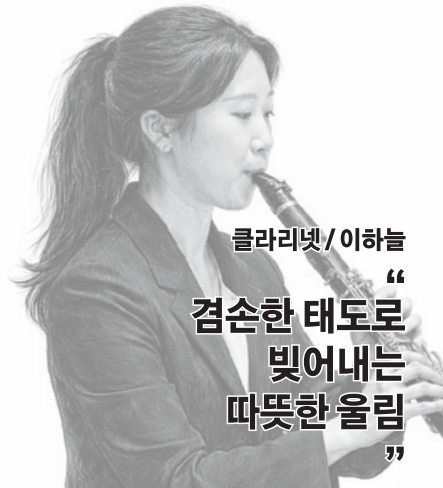
전시와 발레를 즐기는 저의 예술적 감성이 관객분들의 일상에 기분 좋은 떨림으로 닿길 바랍니다. 따뜻한 성원에 보답하는 성실한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김시연의 Keyword

#긍정의힘

#베토벤합창

#예술애호가



클라리넷 / 이하늘
“
겸손한 태도로
빛어내는
따뜻한 울림
”

이하늘의 Keyword

Q. 학업(한예중 전문사)과 입단을 병행하며 바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배움의 과정 중에 입단하게 되어 무척 감사한 마음입니다. 초등학교 관악부에서 클라리넷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함께 호흡하는 즐거움’을 이곳에서도 매일 느끼고 있어요. 전통 깊은 KBS교향악단의 흐름 속에서 겸손하게 녹아드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Q. ‘지휘자와의 눈맞춤’ vs ‘파트원과의 호흡’, 당신의 선택은?

저는 ‘파트 안에서의 완벽한 호흡’을 선택할게요! 파트끼리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뉘앙스와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그 찰나야말로 오케스트라 연주의 꽃이죠.

Q. 관객 여러분께 전하는 한 마디.

KBS교향악단을 통해 관객 여러분을 만나 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대에 설 때마다 설렘과 함께 책임감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매 순간 성실한 자세로 진정성 있는 연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과열정

#깊은울림

#호흡의마법



호른 / 장수정
“
없어서는 안 될
황금빛
존재감
”

장수정의 Keyword

Q. 호른이라는 악기처럼 따뜻한 포부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저는 눈에 띄게 화려한 연주자보다, 오케스트라 안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언니를 따라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며 호른의 깊은 음색에 빠졌던 그 초심으로, 우리 악단의 소리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Q.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생동감’입니다. 음반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지휘자의 리드 아래 수많은 소리가 하나로 모여 폭발할 때의 현장감은 오직 공연장에서만 느낄 수 있거든요. 파트 안에서 숨소리 하나까지 일치될 때 느끼는 그 재미를 관객분들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Q. 관객 여러분께 전하는 한 마디

선배님들과 호흡을 맞춘 지 벌써 5개월, 객석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옵니다. 신입의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대체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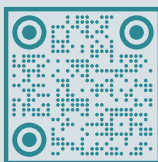
#호른의따뜻함

#생동감_직관추천

KBS교향악단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

>>
자세한 내용은
KBS교향악단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채용부문	직책	인원
공연기획팀	직원(정규직)	1
경영관리팀	직원(계약직)	1
공연사업팀	직원(계약직)	1

지원서 접수 기간 / 2026. 4. 5.(일) 18:00 마감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1956년 창단된 KBS교향악단은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을 이끌어온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어왔으며, 2012년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2026년 창단 70주년을 맞은 KBS교향악단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한국 교향악의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 속의 오케스트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정명훈 지휘자가 있으며, 그는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정체성과 중장기 비전을 이끌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매년 100회 이상 공연을 펼치며 10만 명이 넘는 관객과 만나고 있다. 정기연주회와 기획·초청 공연뿐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클래식의 저변을 넓혀왔다. 방송교향악단으로서 KBS TV·라디오를 통해 연주를 전국에 중계하며, 지역 음악제와 사회공헌 연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클래식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은 창단 이후 꾸준한 해외 활동을 이어오며 국제적 위상을 쌓아왔다. 그 과정에서 도이치 그라모폰(DG) 실황 음반 발매를 비롯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 등을 선보이며 세계 무대와의 교류를 더욱 확장했다. 2023년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 공식 평가 5점 만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폴란드 소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으며 국제적 존재감을 높였다. 202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동 연주회를 열어 문화 외교의 상징적인 무대를 완성했다. 이러한 국제 교류는 KBS교향악단이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를 넘어 K-클래식 세계화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K-클래식 콘텐츠 허브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시기, KBS 전 채널을 통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을 기록했으며, 온라인 클래식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개관해 고품격 콘텐츠를 제공했다. 특히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은 아시아 클래식 계열 최초로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클래식 대중화를 이끄는 대표 채널로 성장했다. 창단 70주년을 맞은 2026년, KBS교향악단은 정명훈 제10대 음악감독과 함께 시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으로 ‘클래식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며 세계 속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의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장 이승환
음악감독 정명훈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지현 이수연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시연 표정아 권예진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클라리넷	이하늘 부수석 박한 양수현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심수연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장수정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김성수 부수석 윤지연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m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Barennie Moon (WDR 필름 방송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수석)
플루트 안명주 수석
클라리넷 김한 수석
호른 Mischa Greull 수석

사무국

사무국장 홍석우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난희 사원 허효정
공연지원파트 | 악기담당 | 단원 유재식 정오준 | 악보담당 |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이한신 책임 손대승 차장 김원재 유연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장태형
경영관리팀 팀장 강길호 차장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 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 포함, 교통/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IP 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동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동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13
yyc@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진 KBS 시청자센터장
			이황선 KBS 예능센터장
			하종란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Concerto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엔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 자산운용	Nocturne	교보문고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재록 (주)석교인앤디 대표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황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9 BLOCK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 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원희 김호수 (주)효석 대표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옥 전)KBS교향악단 사장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운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한국산업은행 SODA	Prelude	권정숙 김희진 포크가수, DJ 박병원 박지현 KBS 아나운서 박향미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서성희 삼성생명 명인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스 대표 윤도식 법무법인 해자현 대표 변호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규혜 한양대학교 교수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장희용 변호사 장희진 올리브클래식 대표 전희재 노무사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최기수 최앤이치과 원장 최정아



CROWN JEWEL[®]

1881년 시작된 글로벌 매트리스 브랜드 쉘리의
독자적인 스프링 시스템 포스처피딕과 숙련된 장인의
수작업으로 완성된 하이엔드 럭셔리 라인업 크라운 쥬얼



구매문의 : 1670-2151



KBS SYMPHONY ORCHESTRA
70TH ANNIVERSARY